

“공항 자동 착륙유도장치 꺼져 있었다”

한·미, 아시아나기 사고 원인규명 본격 착수

美 NTSB 위원장 “조종사들에 이미 통보” 블랙박스 수거... 기체결함·조종사 과실 등 조사

미국 샌프란시스코 공항에서 발생한 아시아나항공 착륙 사고의 수습을 마친 한국과 미국 정부가 사고 원인 규명에 본격적으로 착수했다. 구체적인 사고 원인은 나오지 않고 있지만, 착륙 상황을 토대로 기체 결함이나 조종사 과실, 공항 시스템 미비 등의 다양한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국토교통부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 소속 조사관 4명과 운항안전과 항공안전감독관 2명, 아시아나항공 조사대책반 18명 등은 사고기 조종사 등을 면담해 사고 경위를 파악할 방침이다.

미국 교통안전위원회(NTSB)도 사고 여객기의 블랙박스에 담긴 비행 기록 장치(FDR)와 조종실 음성 기록 장치(CVR)를 회수해 분석에 들어갔다. 항공기 운항 관련 각종 데이터와 조종사 간 대화내용, 조종사와 관제사 간 교신 내용을 담은 블랙박스는 사고 원인을 구체적으로 규명하기 위한 중요한 단서다.

이런 가운데 사고기 착륙 당시 공항의 자동 착륙유도장치가 사고 당시 꺼져 있었던 것으로 확인돼 공항 관련에 착수했다. 국토교통부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 소속 조사관 4명과 운항안전과 항공안전감독관 2명, 아시아나항공 조사대책반 18명 등은 사고기 조종사 등을 면담해 사고 경위를 파악할 방침이다.

글라이드 스코프는 비행기가 활주로에 적절한 각도를 유지하면서 들어오도록 유도하는 장치로, 공항 내 공사 등으로 이 장치가 꺼져 있으면 조종사가 육안으로 착륙을 해야 한다. 사고기가 충돌 직전 착륙을 포기하고 재상승을 시도했던 것으로 드러나 조종사 과실이 의심스럽게 제기되고 있다.

NTSB 데보라 허스먼 위원장은 이날 샌프란시스코 공항에서 그동안 조사내용을 설명하는 브리핑을 열고 “2시간 분량의 조종석 녹음 기록을 분석한 결과 기장은 충돌 1.5초 전에 착륙시도를 중단하고 다시 기수를 상승하려 한 사실이 있다”고 밝혔다. 블랙박스 기록에는 당시 사고 여객기가 너무 낮은 고도에 너무 느린 속도로 활주로에 접근하고 있었으며,

“기장, B777 9차례 43시간 조종”

아시아나항공 여객기 사고와 관련 기체 결함, 조종 미숙 등 원인에 대한 분석이 분분한 가운데 미국 연방교통당국은 조종사 과실 가능성에 초점을 두는 것으로 알려져 귀추가 주목된다. 8일 국토교통부와 아시아나항공에 따르면 전날 사고 항공기 214편이 샌프란시스코공항에 착륙할 때 기장 역할은 이강국 조종사가, 부기장은 이정민 조종사가 맡았다.

이들 가운데 이강국 기장은 해방기종 전환 관속비행 중 비행 경력은 9700시간

한편 이강국 기장은 해방기종 전환 관속비행 중 비행 경력은 9700시간

새 기종 전환 관속비행 중 비행 경력은 9700시간

당 기종인 B777기를 운항한 경력이 9차례, 43시간이다. 그는 1994년 3월 입사해 아시아나항공이 수행하는 조종사 교육을 받고 규모가 작은 비행기부터 비행 경험을 쌓아왔다. 1990년대 중반부터 B747 등 대형 비행기의 보조조종사를 맡기 시작해 2005년에 기장으로 승격했다. 이강국 기장의 777기 운항 경험이 얼마 안된 것이 알려지자 조종 미숙이 사고와 관련은 없을지 하는 의문도 제기되고 있다. 그가 777기로 샌프란시스코공

비행은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절차”라면서 문제가 없다고 강조했다. 최 실장과 항공업계에 따르면 기장으로 승격했다고 하더라도 새 기종을 운항하려면 해당 기종에 대한 충분한 경험을 쌓아 기장 자격을 확보해야 한다. 이를 ‘관속비행’이라고도 말하는데 사고기는 이강국 조종사가 관속비행을 하고 옆에는 B777 항공기 3000시간 이상의 운항 경험이 있는 베테랑 이정민 조종사가 부기장을 맡았다.

금호, 공들인 ‘중국’... 사고수습에 총력

국내 항공사중 中 최다노선 보유

금호아시아나그룹이 아시아나항공 여객기 사고 여파로 그동안 각별하게 공을 들였던 중국과 관계가 틀어질까 노심조사하면서 사고수습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8일 업계에 따르면 금호아시아나 그룹은 국내 대기중에서도 중국과 각별한 관계를 유지해온 그룹으로 꼽힌다. 금호아시아나그룹은 계열사인 금호고속이 90년대 초반 일찌감치 중국에 진출해 이들을 알렸고 금호타이어는 창춘(長春), 난징(南京), 톈진(天津) 등 3곳에 공장을 뒀다. 이번 미국 샌프란시스코공항에 착

륙 중 사고가 난 아시아나항공은 국내 항공업계에서 중국 노선을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을 만큼 중국과 각별하다. 아시아나는 중국 노선이 21개 도시의 31개로, 국내 항공사 중 가장 많다. 아시아나는 중국 취항도시 학교들과 1지점1교를 맺고 지원과 사회공헌 활동을 해오면서 중국 내 인지도가 높아왔다. 이번에 사고가 난 여객기에 중국인 승객이 절반 수준인 것도 이런 아시아나와 중국 간 친밀한 관계와 무관하지 않은 것이다.

박삼구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은 2005년부터 한중우호협회장을 맡고 있다. 두 차례 연임에 성공해 오는 2016년까지 협회를 이끌 예정인 박 회장은 그동안 시진핑(習近平) 국가주석 등 중국 주요 인사들과 만나 양국 간 민간 경제협력, 우호증진 방안을 논의하는 등 민간 외교사절의 역할을 해왔다. 박 회장 귀국 후 임직원들에게 “사고 원인을 밝히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고를 수습하는 일이 가장 중요하다”며 “사고 수습에 총력을 기울이고 사고자의 가족들한테도 최대한 성의껏 조치하라”고 지시했다.



아시아나항공 214편 여객기 사고에서 헌신적으로 승객들을 대피시킨 캐빈메니저 이윤혜씨가 7일 오후(현지시간) 샌프란시스코 홀리데이인 시빅 호텔에서 당시 상황에 대해 설명하기 위해 기자회견장으로 입장하고 있다. 승객을 대피시킬 당시에는 스스로가 부상당한 것을 몰랐던 이윤혜씨는 꼬리뼈 골절상을 입었다.

부상 불구 승객 일일이 구조... 대참사 막은 영웅들

탈출 이끈 승무원 5명

아시아나항공 여객기 사고에서 객실 승무원들이 몸을 사리지 않고 헌신적으로 승객을 대피시킨 활약상이 관심을 끌고 있다. 8일 아시아나항공에 따르면 사고 항공기의 객실 승무원은 태국인 2명을 포함한 12명이 있었다. 승무원을 가운데 7명은 사고로 실신했으며, 나머지 5명은 정신을 차리고 승객들의 탈출을 이끌었

다. 이들은 최선임인 캐빈메니저 이윤혜씨를 비롯해 유태식, 김지연, 이진희, 한우리씨 등으로 주로 기체 왼쪽에서 근무하던 승무원들이다. 이들 5명은 다른 승객들과 함께 부상자부터 차례로 비행기 밖으로 탈출시켰고 정신을 잃은 동료 7명을 대피시킨 다음 맨 마지막으로 기내에서 나왔다. 307명이 탑승한 항공기가 불에 타 완전히 파손된 대형 사고였지

만, 이들의 노력 덕분에 사망자를 2명으로 줄일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한 미국인 승객은 언론 인터뷰에서 “몸집도 작은 여승무원이 눈물이 흐르는 채로 승객을 등에 업고 사방으로 뛰어다녔다”면서 “울고 있었지만 너무나 침착했다”고 칭찬했다. 샌프란시스코의 소방국장도 사고기 캐빈메니저를 ‘영웅’으로 칭하며 찬사를 보낸 것으로 전해졌다.

광주시 예산 전용·변경 많다

앱센터 등 52건 32억
문상필 시의원 지적

광주시의 일부 예산편성과 집행이 효율적으로 운영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지적됐다. 광주시의회 문상필(민중·북구 3) 의원은 8일 “광주시의 ‘2012년도 세입·세출결산 자료를 분석한 결과 광주시가 이미 성립된 예산을 전용하거나 변경해 사용한 예산은 총 52건 32억4475만원에 달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이 가운데 전용은 15건 9억5000여만원, 변경은 37건 22억9400여만원으로 집계됐다. 광주시는 앱센터 운영사업의 예산 편성이 잘못됐다는 감사원의 지적에 따라 4억6100만원을 민간위탁으로

전용해 사용했으며, 인건담당관실과 공원녹지과는 시설비에서 감리비로 각각 3200만원과 1733만원을 변경해 사용했다. 광주 김치 해외축제사업의 경우 행사운영비로 편성한 2억7000만원 중 2500만원을 전용해 국외업무비로 추가 편성했다가 시장의 행사참석비 취소되면서 결산 추경에 감액했다. 문 의원은 “예산이 전용·변경 사용된 것은 광주시가 수요를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고 무계획적으로 편성했기 때문”이라며 “예산의 전용·변경이 의회의 사전승인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이용해 예산심사 기능을 회피하려 한다는 오해를 받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선암동 전원 주택용지 분양

자연과 함께 하는
어등산 빌리지

광산구 선암동 414-17번지 일원
분양면적 7008㎡(117가구)
분양가격 전용면적 평당 130만원
각 필지 면적 약90평~280평(분할·합병가능)
현 토목공사 80%진행중

단지설명 자연속 힐링 주거단지

1. 분양면적은 전체가 쓸 수 있는 전용면적입니다.
2. 각 필지별 상·하수도관려 연결공사 완료
3. 각 필지별 건축허가 완료(각종세금 납부완료)
4. 각 필지별 6m도로 접

찾아오는길

선운자구 영광 → 어등산골포장 호남대학교 어등산 빌리지

도심속 친환경 명품주거타운

선운공인중개사 010-5166-0013
010-2475-0933

행복한 부자를 위한 자산관리 전문회사
주식회사 에셋코리아

부실채권(NPL) 매각
광산구 우산동 웨딩홀
대지권 1345㎡ 건물 2974㎡
감정가격 78억4천만원
채권매각 25억원

회순도곡 무인텔
대지 3198㎡ 건물 1107㎡
감정가격 41억9천만원
채권매각 24억

부실채권매각은 매수희망자 현장실사후
선착순 수의계약으로 진행합니다.

상담 010-7570-7525
광주광역시 동구 지산동 714-73 [2층]
(법원 앞에서 70m 변호사회관 옆 건물) 또는 (지산 주유소에서 법원 쪽으로 20m)

한우전문점 점장 모집
남평을 "솔향기맑은터" 한우전문점에서 근무하실
응모단정하신 점장을 모집합니다.

호형경력자 또는 관리경력자 45세미만 남녀
연봉 3,000만원이상, 4대보험, 퇴직금, 월4회 휴무
이력서(사진), 자기소개서 지참 면접
문의 010-7570-7525

**부동산 성공 투자
하늘땅 공인중개사 가 함께합니다**

상가건물

- ▶첨단 중심상권 상가건물 18억, 21억, 30억 외 다수
- ▶월산동 일반상업지역 6층건물 매 14.7억
- ▶두암동 5층 상가 건물 8.5억
- ▶지산동 5층 사무실 건물 16.5억
- ▶동천동 공장·청고 임대(대1300㎡, 건400㎡) 2억 천 월3백만

대지/전답

- ▶나주시 평산동 446-7 일대 배과수원 13,727㎡(4,150평) 매매가 협의
- ▶완도군 약산면 토지 3,160평(신축주택포함, 펜션등 다용도로 이용가)
- ▶장성군 서삼면 추암리 토지 1,050평 1.8억(펜션 요양시설 적합)
- ▶장성군 삼계면 대지 외 4130㎡(1,250평) 1.7억
- ▶장흥군 장평면 전원주택(660㎡, 전13,165㎡ 포함) 3.5억
- ▶신항동 청고용지(생산지) 1980㎡(600평) 매매가 협의
- ▶수원지구 원봉부지 323㎡(98평)

기타

- ▶첨단 메인대로변 구분점포 150㎡ 매매8.5억
- ▶첨단 중심대로변 1층 상가 578㎡(175평) 임대 1010월 1,200만
- ▶전남 나주시 문평면 국도1호변 주유소 7억
- ▶전남 소재 골포장 1,000억

부동산과 관련된 모든 문제 친절히 상담해드립니다.
●광주 전남권 매도 매수 물건 접수 환영합니다.●

부동산 투자의 새로운 패러다임
하늘땅 공인중개사 사무소
062)973-0045 010-5536-0382

다외부동산 재테크컨설팅

(주)다외부동산건설본부, 매수신청대리업체(법인인가)
상가 주택임차에서 영도, 동기, 양도신고까지(무료상담)

상가 주택

- ▶동구 총창로5가 중심상업 7층상가사무실 대지579㎡ 건물2929㎡ 감정가43억 최저가24억
- ▶광산구 윤남동 2층주거 3층상가주택 대지221㎡ 건물440㎡ 감정가75억 최저가3억5천만
- ▶광산구 신가동 3층상가주택 대지429㎡ 건물561㎡ 감정가76억9천만 최저가4억8천만

단독주택

- ▶서구 화정동 2층주거2층주택 대지159㎡ 건물184㎡ 감정가1억3천만 최저가9천만
- ▶서구 화정동 2층단독주택 대지154㎡ 건물196㎡ 감정가1억6천만 최저가1억2천만
- ▶광산구 송정동 2층주거단독주택 대지252㎡ 건물131㎡ 감정가1억3천만 최저가9천만

공장 및 창고

- ▶광산구 지족동 준공업지역2층공장 토지1914㎡ 건물1379㎡ 감정가15억 최저가8억3천만
- ▶광산구 용동 일반공업 2층공장 토지3305㎡ 건물2711㎡ 감정가30억 최저가21억
- ▶담양군 창평면 단층창고, 사무실 토지3279㎡ 건물1560㎡ 감정가4억7천만 최저가3억2천만

토지 매매

- ▶동구 내남동 1층주거 전원주택부지 주거환경최상 대지750㎡ 상당후 가격조정
- ▶무안군 해제면 덕산리 관리지역 전.임야 3642㎡ 매매3,500만

문의 010-4911-4989
(팩스 062-226-3607)

저렴한 고급별장

정남진 장흥. 득량만 해변가 환상적인 드라이브코스해 수욕장과 선착장 그리고, 최고의 위치락시설이 어우러진 절경의 별장지

토지
4,900㎡(1,485평)
건물 245㎡(75평)

캐나다산 수입목 목조건물(100%)에 수입 창호등 최고급재 및 내부 공기 자동배출방식의 승위는 집. 자세한 문의는 사무실로 내방바랍니다

매매가 : 협의

최고의 도심속 전원주택지
지산동 2차순환도로 인근 도심속의 전원주택지
전 3,700㎡(1,120평)
매가 3억9천만원

자세한 문의는 사무실로 내방바랍니다.
개간완료된 일야
국립근 울곡면 죽령리 관저역 동광주 IC에서 15분거리 도로점입)25,700㎡ 매가1억9천, 개간완료 및 토질 좋음(과수원, 양초, 귀농 등 적합)

저렴한 전서판매장
주월동 상가점유자 입구 대로변 코너 대지 512㎡ 건물560㎡ 매매가7억9천(가구, 전자, 자동차, 아웃도어 등)전서판매장 최적

행운공인중개사사무소
(구, 대창공인)
011-642-7777